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창립식



---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

■ 일 시 :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서울 서초대로46길 7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초대장** **2**

---

**식순** **3**

---

**기조 발언** - 권영숙 제안자 **4**

- 연구소를 발족하며
- 상립 취지

---

**축사 발언** **7**

- 조익연 서울시 교육감
- 이종희 노동당 공동대표
-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외 회장
- 김영수 거제통영고성 조선아청지외장,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와물연대 위원장

---

**축하 메시지** **13**

- 양규언 노동자역사 안내 대표 /전노협 마지막 위원장
- 김오철 민중가요 작곡가
- 조성웅 시인 / 연대중공업 사내아청노조 초대지외장
- 손오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지울 스님
- 송기훈 군의문사대책위원장 / 전북대 법대 교수
- 양익철 비전향 장기수 / '만남의 집'
- 권옥자 청주시립요양병원 분외장



---

**개회가 - 인터내셔널가** **15**

---

초대장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에 초대합니다

2023.  
03.25.(토)

4:00<sub>pm</sub> - 6:30<sub>pm</sub>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대로46길 74)

재정 후원 URL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https://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식 순

## 개회 선언

## 민중의례

- 인터내셔널가 (최도은 선창)

## 축사 1

- 조익연 서울시 교육감
- 이종외 노동당 대표
-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회 회장

## 축사 2

- 김영수 거제통영고성 조선아쟁지외장,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와물연대본부 위원장

## 연구소 창립 기조 발언

- 권영숙 제안자공연
- 최도은 민중 가수
- 임정득 민중 가수

## 연구소 안내

- 김수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운영위원

## 단체 촬영

## 다과 및 건배사

## 폐회

## 기조 발언

### 연구소를 발족하며

권영숙 제안자

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그것도 ‘거창하게’ 보여질법한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결과가 매우 미확정적인) 이름과 명분을 걸고 시작할 때,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 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이런 때 많은 이들의 십시일반 도움 그리고 전달되는 마음과 의지가 무언의 격려가 되고, 실제적인 도움 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발족하면서 제가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학습모임과 연구 실천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 어요.

연구소에 연구만을 하는 상근 연구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땅의 변혁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겠죠.

연구소로서 삼은 역할을 흔들리지 말고 잘할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고, 재정 후원 해주시고, 토론회등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체계적인 학습모임에도 같이 해주시 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필요한 연구 조사를 의뢰해주셔도 가능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돈벌이가 목표는 아니어야 합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필요한 연구조사는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중 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에 필요한 연구 성과로 복무하는, 이론적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기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손발로 실천하려는 모토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입니다.

맑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혁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세 진단은 정치적 세계관과 단단한 이론의 골조 위에서 가능합니다. 정세론이 모든 것의 총화인 이유입니다.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세계관, 이론적 당파성, 그리고 현실 파악의 구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정확한 정세를 진단할 때 우리는 정확한 실천으로 구체적인 현실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세와 실천에서 이론적 능력과 실천, 그리고 이념적 방향, 즉 당파성 양자가 균등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론과 이념이 부재한 운동은 방향을 상실하고 동요하기 십상입니다. 외국의 것을 발빠르게 번역하여 낸다고, 혹은 19세기로 돌아가서 맑스만 읊조린다고, 20세기 초로 돌아가서 레닌과 룩셈부르크만 읊조린다고 해서 이론과 이념이 곧바로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경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론의, 현실에 대해 걸도는 개입일 뿐입니다.

지금 맑스를 현재화하자 혹은 21세기 맑스를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첫째,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여 연결하고, 둘째,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과 학습,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셋째, 변화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예민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이론화도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변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이론적 자세와 이론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론적으로 도모하는 하나의 소박한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 창립 취지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혁명 혹은 이행은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 맺음과 동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와 전 지구적 변혁과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는 결정적인 이론적 정치적 화두입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론과 실천의 일치 혹은 이론적 실천
- 우경화되는 담론지형 속에서 좌파적 담론의 형성과 개입
- 노동운동에 필요한 개념, 정책, 이슈 등 연구 생산을 통한 기여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다음의 3개 주제를 핵심 연구로 삼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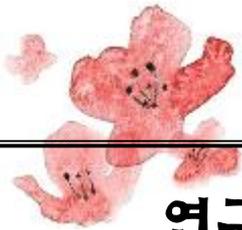
- 민주주의와 노동
- 정치경제학 비판
- 법과 정치

연구 활동에 항상 다음 경구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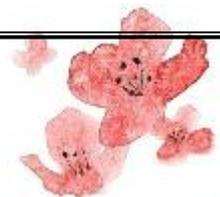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발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 의미있는 참여,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 연구소 후원 안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 독립을 위해서 다음 후원장구를 개설했습니다. 연구소는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연구소 소식과 연구성과를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 축사 1

### 포의연 서울시 교육감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진보의 새로운 길, 노동의 새로운 전망과 실천방략을 깊이 있게 탐구할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창립에 축하를 보낸다.

반독재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동이 자기 길을 개척해 왔다면, 이제 '민주화시대의 전환적 위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리고 AI, 로봇, 챗 GPT로 상징되는 거대한 기술적·산업적 전환의 조건 속에서, 노동이 전진해야 한다. 바로 이런 때, 여전히 비판적 지식으로 이 전진을 보조할 연구진지가 있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를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견인했던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상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진보의 길을 개척해 왔다고 하면, 다음 세대들은 선배의 유산과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다양한 '민주적 진지'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진보의 길을 개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숙 선생을 비롯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지금껏 그런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 성과 위에서, 변화하고 있는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새로운 현실 속에 치열하게 대면하면서 정치경제학 비판의 새로운 통찰을 끌어내서 우리의 진보의 길을 밝히는 것, 법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적 통치 속에서 노동의 길을 찾아내는 것, 반독재와 민주화시대를 경과하면서 분화된 노동운동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유기적 지식인들이 모여 '백지장을 맞들일려고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이들의 헌신에 기대를 보낸다.

## 축사 2

### 이종외 노동당 공동대표

불안정노동체제에 들어서면서 사회연대전략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태일은 풀빵을 팔고 있고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체제의 조직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법과 제도의 밖에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최근 해를 바꿔가면서 전태일 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과 같은 삶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한국의 노동자계급정치운동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고, 2000년대 중반 민주노동당에서 인민전선에 복무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제기한 사회주의 강령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노동자계급정치운동 지형으로의 정치적, 계급적 분화가 있었다.

또한 100년만의 공황이라고 하지만 자본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80년 전후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통화주의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나가고 있다.

나는 창립하는 연구소 [민주주의와 노동]은 갈리아의 수탉만이 아니라 미네르바의 올빼미조차 불러올 것을 요구하는 이 엄중한 시대의 과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축사 3

#### 임운택 전 비판사외약외 외장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진보적 연구소가 발족합니다. 축사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는 아닙니다만, 또 하나의 진보적 연구소 현판을 내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근과거에서도 그랬고, 멀리는 자본주의 내 진보의 역사에서도 무수히 많은 진보적 지식생산, 즉 이론의 생산이 개별적으로, 연구자 집단의 형태로 혹은 정당의 형태로 생겨났다가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져가는 것’과 운명을 공유하는 삼쌍동이 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진보적 이론의 생산은 항상 실천적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당대의 실천과 이론이 부조화의 상태에 빠지면 비판과 반비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멸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간다는 것은 일정하게 시대의 소임을 다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는 그 명칭에서 사라져갈 수도 있는 소임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노동은 지난 2세기에 걸친 역사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자본주의는 노동과 민주주의의 피를 빨아먹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생명력은 백년 전 붕괴론적 전망을 기대했던 초기 맑시스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현존 사회주의보다 훨씬 내적 자생력이 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의 저항과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의 재조직화는 종종 노동자와 당의 ‘총아들’이 계급이론을 과도하게 물상화함으로써 계급적 실천과 괴리되어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변형은 기술발전과 노동세력의 끊임없는 포섭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를 그림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분석했고, 어려운 시기에는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68’이, 한국에서는 87’이 기동전에 대한 일시적인 낭만과 희망을 꿈꾸기도 하였으나 그 절박한 위기에서 자본주의는 살아났고, 현존사회주의는 붕괴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제 노동과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는 현판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오랜 역사의 대문자를 가져왔지만, 그 자체로 진부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개념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자본의 운동에 따라 변형(metamorphosis)하는 것이므로 실천을 염두에 둔 진보적 이론의 과제는 이 글자의 역사적 범주에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업장 내 노동통제와 지불방식이 오랫동안 노동 연대투쟁의 중심이었다면, 현존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발은 노동의 자율성과 성과를 통해 연대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광산·화학노조의 운명을 오늘날 제조업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지속적인 변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축적체제를 거부하는 반혁명의 깃발을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진보는 항상 교조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로자의 그 유명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당시 개량적 사민주의와 불세비키에 의한 권력의 과도한 도구화에 대한 로자의 비판은 오늘날에도 타당해보입니다. 비권위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된 공동체의 발전은 확실히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고는 말 그대로 부유하는, 가능한 모든 자유로운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결국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전망의 가능한 방식을 탐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거리에서 많은 진지전을 수행해왔으나 이론적으로는 파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지회복에 목을 맨 시민사회론자의 대대적 약진 속에 정치경제학 이론가의 제도권 진입은 제한되었고, 맑스주의는 일부 강단좌파와 유사 구루집단의 교조적 학습에서, 혹은 강남좌파의 주술적 인용문에서 기생해왔습니다. 시민사회론자에게 혁명적 개혁이론가는 맑스가 아니라 케인즈였고,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이 아닌, 화석화된 교조적 이론으로 혹은 수입된 해외이론가의 학습대상으로 생존해왔습니다. 당연히 실천은 이론과 괴리되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전환시대에 다시 우리는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 민주주의의 조건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조건, 구매방식, 노동통제, 노동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핵심적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는 이러한 지난한 과제와 마주하는 또 다른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성마른 개입주의에 경도된 정치주의적 해석과 자본주의의 몰역사성에 기반을 둔 교조적 해석(일례로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이윤율의 법칙’)과 실천을 넘어 구체적현실분석과 구체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소의 발족을 축하합니다.

## 축사 4

### 김영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겸 비정규이제그만 집행위원

먼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작년 여름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물음을 이 사회에 던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은, 단지 대우조선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구호와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불평등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립되고 소외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전국에 알린 투쟁이었습니다. 그 칼날 위에 선 투쟁이 한창이던 당시 권영숙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인터뷰 동안 미친 듯이 제가 가진 생각과 당시의 심정들을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산현장에서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생명이 유지되고 사회가 중단없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노동은 점점 소외되고, 분리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현장에는 억압과 차별 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노동계급은 존재할 것이고, 그 계급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출범을 성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출범하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이론적 실천과 연구 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정확히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투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단히 날카로운데 반해 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모자랐습니다. 그런 모순을 안고 따로따로 맞붙은 싸움이 시작되어 결국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가진 특수한 생명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패배를 통해서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축사 5**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와물연대 위원장**

자본의 요구에 의해, 자본을 비호하는 학계의 연구자들은 온갖 수치를 앞세운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자본의 논리를 옹호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실천위에 이론이 덧 씌워진다면 노동의 실천과 투쟁은 더욱 강력해지고 폭발적일 거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 창립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본의 거짓과 왜곡을 깨는 망치가 되어 소수의 자본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고, 노동의 정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에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리라 기대합니다.

## 축하 메시지

\*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자를 향한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화물연대 파업을 협박으로 종료시킨 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수색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매도하며 구속시키는 야만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정권의 무차별 탄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핵심정신인 ‘변혁성’조차 보이지 않음은 물론 반격이라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노동운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노동운동 노선의 이론과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 개념과 정책을 생산하는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설립은 노동운동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진심으로 기대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

### - 양규언 전노협 4대 위원장/연 노동자역사 안내 대표

\* 그 어느 때 보다 극악한 반동 반노동의 시대. 매 맞고 갇히고 죽고 또 죽임당해도 한없이 자본에 포섭되어가기만 하는 기막힌 복종과 굴욕의 시대.

부디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가 약진하시어 그간 실천으로 보여주신 권영숙동지의 명철한 분석과 지혜로 때론 회초리로 때론 보듬으로 이 방황하는 노동에 희망의 새 길 활짝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구소의 건승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김오철 민중가요 작곡가

\* ‘올해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연구집단을 구성”해 새로운 정치적 좌표의 전망을 제시하는 건 경계조차 사라진 지금 정세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학 비판의 관점”은 더욱 중요하지요.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하신 일, 힘차게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 - 조성웅 시인 / 연대중공업 사내아청노조 초대지외장

\*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가 위기에 빠져있는 좌파의 무능과 무기력에 죽비를 치고 좌파가 다시 깨어날수 있는 각성제이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 - 손오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자유로운 사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물에 걸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길은 동서남북이 없으니, 동서남북으로 뿌리내려 만인이 쉬어가는 생각의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지울 스님**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도 국민에 의해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력”이 국가권력만을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권보장을 위해 경제권력은 견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몫과 지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창립을 축하하고,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노동의 앞날을 함께 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 - **송기훈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 권영숙 선생님의 새로운 시도와 출발을 축하합니다.

평소 사회정의와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시려고 촌각을 아끼시며 분투하셨던 권영숙 선생님.

민주주의의 장을 넓히시려고 가진 자의 모순성을 밝혀내셨고 시대의 선도자로서 노동자와 노동문제에 넓고 깊게 천착하셨던 권영숙선생님!

웅비의 나라 활짝 펼치시어 창공을 훨훨 날으소서.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 - **양익철 비전향 장기수/ '만남의 집'**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창립식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 같은 열악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축하받아야 할 창립식일 듯하네요.

살기 위해 투쟁하고, 어렵게 현장 들어와도, 또 그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또, 현장사수를 위해 끝없는 투쟁의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밑바닥 노동자들이 그래도, 힘낼 수 있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 일으켜 주시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기에 힘내서 오늘도 늙은 노동자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 **권옥자 영주시립요양병원 분의장**

## 개회가

### 인터내셔널가

#### 1절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 후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 2절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매인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 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 후렴 반복

#### 3절

억세고 못박혀 굳은 두 손 우리의 무기다!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오른다!

#### 후렴 반복

# 인터내셔널

A D E7 A E7

5 A D E7 A

9 E B7 E B7 E B7

13 E EM7 A E B7 E E7

17 A D E7 A E7

21 A E7 F#m C#7 D B7 E E7

25 A D E7 A A7

29 F#7 Bm7 E7 A E7 A

깨어 역세  
 어 떠 고  
 라 하 못  
 노 높 박  
 동 - 힌  
 자 - 우  
 의 시 리  
 구 양 두  
 대 반 손  
 굴 고 우  
 레 귀 리  
 를 함 의  
 벗 이 무  
 어 - -  
 던 념 기  
 저 - -  
 라 도 다  
 정 허 나

의 고 약  
 는 에 한  
 분 매 노  
 화 인 -  
 구 신 예  
 의 자 의  
 불 가 근  
 처 럼  
 힘 일 두  
 차 구 술  
 계 원 어  
 타 못 버  
 온 하 리  
 다 네 자  
 대 우 무  
 지 리 너

에 거 신  
 - 음 -  
 저 되 폐  
 주 - -  
 반 광 하  
 은 니 의  
 땅 거 땅  
 에 은 에  
 새 강 평  
 세 철 등  
 계 갈 의  
 를 은 못  
 필 우 피  
 칠 리 울  
 때 손 때  
 어 노 우

떠 예 리  
 한 의 의  
 날 쇠 불  
 사 - -  
 은 음 리  
 쇠 관 새  
 사 어 태  
 슬 내 양  
 도 고 은  
 우 해 지  
 리 방 평  
 를 은 선  
 막 로 에  
 지 나 떠  
 못 가 온  
 해 자 다  
 들 어

라 최 후  
 결 전 투 쟁  
 의 외 침  
 을 민

중 이 여 해  
 방 의 깃  
 발 아 래 서  
 자 역 사

의 참 된  
 주 인 승 리  
 를 위 하 여  
 인 터

내 서 널 깃  
 발 아 래 전  
 신 또 전 신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